

藝術學碩士 學位論文

식민지시기 조선으로 이주한 일본인
처들의 인물사진 연구
-연구자의 인물사진을 중심으로-

慶州大學校 產業經營大學院

映像藝術 學科

金 鐘 旭

2007年 12月

식민지시기 조선으로 이주한 일본인
처들의 인물사진 연구
-연구자의 인물사진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김 성 민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12月

慶州大學校 產業經營大學院

映像藝術 學科

金 鐘 旭

金鐘旭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查 委員長 김 수 련 印

審查委員 김 창 현 印

審查委員 고 경 래 印

慶州大學校 產業經營大學院

2007年 12月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6
2. 연구대상.....	8

제2장. 역사적 배경과 의의.....11

1. 内鮮一體의 길.....	11
2. 内鮮一體 精神의 強化.....	13
3. 내선결혼의 장려.....	15
4. 내선결혼이 이루어진 환경.....	16
5. 韓·日 결혼자의 파탄.....	18

제3장. 작품론

1. 작품의 성격과 배경.....	21
1) 아우구스트 잔더(August Sander).....	22
2) 티나 바니(Tina Barney).....	25
2. 작품의 이해	
1) 형식적인 측면.....	27
2) 작업의 의도.....	28

제4장. 역사적 증언

1. 경주 나자레원 할머니들의 삶의 이야기.....	33
▪ 일본인 처들의 친필 싸인.....	43
▪ 詩 (요네모또 도끼에 할머니).....	44
2. 韓國社會의 民族主義.....	48

제5장. 결론

▪ 연구결과.....	50
▪ 참고문헌.....	53

부록, 논문관련 연구 작품

1. 작품목록.....	55
2. 작품사진.....	57

▪ 작업노트.....	97
▪ 국문초록.....	98
▪ 영문초록.....	100

제 1장. 서 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 경주의 나자레원 복지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할머니들로 일제 강점기에 조선으로 시집와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평생을 異國땅에서 살며 침략자 국가의 역사적 허물을 쓴 채 조용히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연구자는 이 일본인 할머니들의 표정과 생활의 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느낌과 이미지들이 일제 강점기가 빚어낸 또 다른 우리사회의 단상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다큐멘터리 사진을 남기는 것이 이 시대의 사진가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게 되었다.

일본인 처들의 모습에서 과거 시간 속의 인생역정을 읽을 수 있으며 피에로 같은 반복적인 삶, 또는 보호받지 못한 거친 삶에서 비롯된 신체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안면의 주름, 휘어진 허리, 미묘한 표정 등에서 왜곡하거나 감출 수 없는 과거를 볼 수 있게 된다.

본 다큐멘터리 사진연구의 목적은 첫째, 그동안 식민지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던 것을 시점을 달리하여 가해자인 일본의 입장에서 자국민들에게 감내도록 한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제국주의 야욕의 희생양이 된 일본인 할머니들의 아픔과 그런 와중에서도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여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의 침략적 역사에서 비롯된, 이 최후의 중인들이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우선 인간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위치와 타당성을 되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잊혀져가는 근대 한·일 역사를 새로운 각도로 인식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물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확신을 갖게 된다.

둘째, 안면의 주름과 휘어진 허리, 미묘한 표정 등은 인물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이를 할머니들이 연출하는 진 솔한 이미지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온 시간과 공간의 의미탐구’라는 점에서 오랜 시간 연구자가 추구해 온 기존의 다큐멘터리 사진과 연구의 방향성이 일치 한다.

셋째, 본국의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삶도 뜻뜻하지 못했지만 오랜 세월동안 변함없이 일본인으로서의 삶을 지켜나가는 이들에게서 인간으로서 공통된 삶의 의지와 자국민족의 자긍심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능력을 시험하듯 고통 속에서도 피에로처럼 삶을 이어온 이들 일본인 처들의 인생을, 현대의 인간사회에서는 민족주의를 초월한 의식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침략국의 국민이라는 고정된 시선에서 탈피하여 글로벌시대의 사회적 시각에 초점을 두고 여러 방면에서 민족의식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조선의 일본인 처들은 대부분,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내선 일체 및 식민지 동화정책의 일환으로써 내선결혼의 장려에 의하여 조선인과 결혼한 일본 여인들이다.

우리보다 근대화를 일찍 맞이한 일본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출현과 전쟁수행에 따른 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유입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민간 차원의 교류로 발전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이 공공연히 이루어 졌다. 일본인 처들은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본국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었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異國땅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도 있었다.

연구자가 기록한 일본인 처들의 공통점은 조선의 남자를 사랑한 것과, 부모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였다는 점, 그리고 침략자 국가 출신으로 죄책감과 함께 육십년 이상을 祖國 日本을 그리워하면서도 異國땅에서 강직하게 살아오신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처지는 사실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상황이다. 연구자의 결과물에 이들의 고향과 성명을 표시한 것은, 이들을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환

원시켜 한·일 국제관계 속에서 과거 세대의 사회구조 및 현상에 대한 역사적 증언으로써의 이들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자 함이다. 한편 근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인간사회의 모습과 일제가 실시한 내선일체의 유형을 파악하여 후세에 이들이 살아간 시대의 상황을 알리고 역사적 배경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들을 함께 기록하고 널리 알리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 대상

일본인(日本人)과 조선인(朝鮮人) 사이의 결혼(結婚)을 내선결혼(內鮮結婚)이라 한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으로 시집와서 해방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異國땅인 조선에서 반세기 이상을 살아온 일본인들이다. 복지시설인 나자레원에서 생활하는 이 노인들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복지시설에 몸을 의탁했거나, 가족과의 이별 혹은 연고자가 없고, 지병이 있는 노인들이 많지만 이들 가운데에는 복지차원이 아닌 고향이 같은 상대자에서 찾을 수 있는 동질감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눌 대화 상대를 찾아서 이곳에 정착한 이들도 있다. 모두가 거동이 불편한 아흔 전후의 외로운 할머니들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연구자는 할머니들과 대면하면서 제국주의 침략 국가의 역사적인 허물을 쓴 채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경주 나자레원에서 생활하시는 이 할머니들을 본 논문의 연구 대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많은 시간을 이들의 삶의 공간에서 함께하면서 연구자는 다큐멘터리적 접근을 통해 그들의 삶속에 녹아있는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 했으며, 관계자들의 혼신적인 도움과 함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작가이면 누구나 결과물에 대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가 제시한 이미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최종

적으로 제시될 이미지에 대하여 예측하게 되고, 그로인해 작업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인물 초상사진 외에 나자레원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행사 같은 상황들도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촬영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계절별로 다채로운 행사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했던 다수의 복지 사들과 지역의 봉사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 복장을 하고 등장하는 일본 할머니들과 한국 할머니들이 함께 어울려 행했던 많은 행사는 이들의 삶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다.

흔자 움직이다가 넘어져서 병원 신세를 지거나, 작업 도중에 사망하신 분들, 혹은 부끄럼이 심하여 사진 촬영에 쉽사리 응하여 주시지 않으신 분 등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고령인 관계로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는 나자레원 복지시설 내로 한정 되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지 작업을 했던 공간은 할머니들의 마지막 쉼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곳은 기모노 인형, 가족사진, 장신구들이 질서 있게 놓여있는 할머니 자신들만의 공간이다. 이런 소품들도 함께 촬영함으로써 연구자는 그 안에 녹아 있는 그들만의 정서와 문화적 코드들을 읽어내려고 하였다.

특히, 이들의 행동에서 나오는 일본사회와 문화에 대한 그들만의 높은 자긍심과 강인한 정신력을 사진으로 엮겨 놓는 작업이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었지만, 그 모습은 사진 이미지 곳곳에 묻어나고 있다.

이들은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해방이후 한국 땅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을 한국인들과 함께 겪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눈에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성장으로 근대화를 이룬 나라이지만, 반대로 큰 부작용도 함께했던 나라이다. 광복이후 남북 분단국이 되었고, 6.25사변 및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로 인하여 4.19혁명을 겪어야 했고, 5.16 군사 혁명과 10.26 및 12.12사태 등 큼직한 사건들과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한·일의 역사뿐만 아니라, 해

방 후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카메라는 일종의 허가서와 같다”고 했던 다이안 아버스(Diane Arbus)의 말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질 마지막 증인인 일본인 처들에 대한 사진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자는 이들이 과거의 잘못된 역사로 인해 겪어야 했던 인간의 존재적 가치에 관한 문제와 운명적인 관계로 엮어진 사회적 현상들에 대하여 진정한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주요 테마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봄꽃 나들이 2006.5

가을 체육대회 2006.9

제2장. 역사적 배경과 의의

조선총독부의 정책에서 민족동화정책의 일환으로 내선일체¹⁾의 정신에 입각하여 내선인의 생활의식과 형체가 동화 및 동체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황국신민화를 실천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했다. 내선인 사이에는 언어, 풍습, 습관, 문화, 전통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가정이기 때문에 내선 일체운동은 가정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내선 결혼²⁾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기 시작하게 되면서 내선일체의 일환인 내선결혼을 강요하게 되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결혼을 장려하면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국제결혼이 성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일본인 처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패전에 의해 남편과 자식을 한국에 남겨두고 귀환선에 오르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남편의 학대와 냉정한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감당하면서까지 한국에 남기를 원하는 이들도 있었다.

다음은 당시 내선일체를 위해서 일본 당국이 각종 잡지 등의 지면을 이용하여 당위성을 주장한 글들이다. 이러한 글들을 통하여 우리는 당시 내선결혼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정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내선일체(內鮮一體)의 길 1935年11月, 비판 잡지

한번 구라파(甌羅巴)에 전단(戰端)이 터지자 일순(一旬)이 못하여 파란(波蘭)

1) 전쟁 중 내선일체 (內鮮一體)가 강요되어 남한에서만 3000명 이상이 일본인 여인이 조선인의 처로 되어 있었다.

2) ‘내선(內鮮)결혼’ 한국과 일본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좋은 생각, 즉 식민지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인은 미개한 조선인을 계몽하여 완전한 일본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선결혼이 필요하다는 논리이고, 그와는 달리 조선인은 일본인으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선결혼을 통하여 보다 철저하게 내선일체에 참여하여 일본인다운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혈제(血祭)에 오르고 뒤따라 라타니아 라트비아 급(及)에스토니아 등소국(等小國)이 소련(蘇聯)의 밥이 되었고 북구(北歐)의 소국(小國)芬蘭(芬蘭)은 명예(名譽)있는 독립(獨立)과 자유(自由)를 爲하여 백설(白雪)이 덮인 국토(國土)를 피로서 물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화란(和蘭) 백이의(白耳義)를 위시(爲始)한 일련(一聯)의 약소국가(弱小國家)들은 그야말로 전전경경(戰戰競競) 실(實)로 그들의 운명(運命)은 풍전등화(風前燈火)인 감(感)이 없지 않다.

하나 동아대지(東亞大地)에서 포성(砲聲)이 들린 지 삼년유여(三年有餘) 횡폭(橫暴)한 장개석의 맹폭(盲爆)이 단속(斷續)되고 또 한편에서는 양처(兩處)에서나 적색소련(赤色蘇聯)의 불법월경(不法越境)이 있었는데도 불구(不拘)하고 조선(朝鮮)땅에 폭탄(爆彈)한개(個) 아니 총(銃)알 하나의 피해(被害)도 없이 질서(秩序)와 안녕(安寧)을 유지(維持)해 온 것은 무슨 힘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진실(眞實)로 내선일체(內鮮一體)의 힘이요 조선(朝鮮)사람이 皇國臣民이 됨으로서만 형유(享有)할 수 있는 행복(幸福)이요 권리(權利)인 것이다. 남총독(南總督)이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제창(提唱)하자 조선민족(朝鮮民族)의 전송(前送)에 대해서 관심(關心)하고 또 조선민족(朝鮮民族)의 운명(運命)을 자기 자신(自己自身)의 운명(運命)으로 간주하려는 조선민중(朝鮮民衆)은 특히 지식계급(知識階級)은 누구나 이 문제(問題)에 대해서 심사숙고(深思熟考)와 은밀(隱密)한 비판(批判)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색(摸索)한 끝에 드디어는 역사상(歷史上)으로 내선양족(內鮮兩族)은 원래부터 동원(同源)인 것을 탐지(探知)하고 수천년래(數千年來)로 여러 가지의 갈등(葛藤)과 망각(忘却)의 불행(不幸)을 지나 여시(如斯)한 원심적(遠心的)인 작용(作用) 속에서 또한 혈액(血液)과 문화(文化)의 교류(交流)에 ert(儀)한 구심적(求心的)인 효과(效果)가 축적(蓄積)되어 나아갈 길로 나아간 오늘의 일체(一體)에 이른 곳에 환희(歡喜)와 행복(幸福)을 발견(發見)하는 것이다. 오인(吾人)이 진지(眞摯)한 태도(態度)로서 역사(歷史)를 검토(檢討)한다면 오늘의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정치적 현실이 얼마나 그 필연성(必然性)을 역사적제사실(歷史的諸事實)

에 의거(依據)하고 있는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일(今日)의 동아신질서 건설(東亞 新秩序 建設)과 및 그 개관적인 대세(大勢)가 내선일체(內鮮一體)의 필연성(必然性)을 여하(如何)히 고조(高調)하고 있는가를 누구나 절실한 현실의 문제로서 체험하게 됨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 불가피성 또는 필연성은 왕왕(往往)히 오인(吾人)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때가 있고 때로는 필연성(必然性)과 없을 과의 사이에 반발(反撥)을 이래(爾來)하는 경우가 있어서 양민족간(兩民族間)에 고민과 비극을 낳은 예가 사상(史上)에 드물지 않았다. 때문에 오늘날의 내선일체(內鮮一體)가 단순히 필연성(必然性)에만 의거(依據)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양 민족의 감정의 세계에까지 침투(侵透)되어 있는 것은 흔쾌(欣快)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코 무연(無緣)한 이민족간(異民族間)의 실력에 의한 정치적 결합이 아니고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되는 마음으로부터 내선(內鮮)이 일체(一體)가 된다면 얼마나 유쾌(愉快)하고 얼마나 행복(幸福)한 일이라.³⁾

2. 内鮮一體精神의 強化 (小時評) 一聲生 (월간)조광 46(5-8) 1939年 8月

일한합병(日韓合併)이래(以來) 근 삼십년(近三十年) 우리는 과거의 국가적 전통(傳統)을 버리고 엄숙(嚴肅)히 일본 국민(日本國民)으로의 자격(資格)으로써 일시동인(一視同仁) 오늘날까지 생장 발전(生長發展)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오인(吾人)이 새삼스러이 내선일체(內鮮一體)를 강조(強調)하게 되는 것은 사변하(事變下) 일본정신발양구현(精神發揚具顯)을 더욱 강화하여 참된 일본민국(日本民國)으로써의 소임(所任)을 다하려는 것이니 이 위대한 이념(理念) 밑에 조선민중(朝鮮民衆)은 재출발 재인식(再認識)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黃敏湖 編者, 日帝下 雜誌拔萃 植民地時代 資料 叢書 政治편 啓明文化史, 1992, p801

무릇 민족과 민족이 합치고 거기 새로운 일련(一聯)의 국가적 단결력(團結力)을 건립(建立)하는 것은 동아신건설(東亞新建設)을 꾀하는 금일(今日) 더욱 중차대(重且大)하게 되었나니 구주(歐洲)에 있어서 독이(獨伊)의 통군(通軍)도 우리일본의 전승적 보조(戰勝的步調)와 함께 보보당당(步步堂堂) 세계적 강력국(世界的強力國)으로의 패기(霸氣)를 천하(天下)에 호령(呼令)하는 것이 아닌가? 조선(朝鮮)은 역사적(歷史的)으로 일본(日本)에 병합(併合)하여 일본신민(日本臣民)으로의 자격(資格)을 구존(具存)하게 되었고 지리적(地理的)으로 병참기지(兵站基地)로써 만주국(滿洲國)과의 연락(聯絡)과 지나사변처리(支那事變處理)에 요로(要路)이니 여기 조선(朝鮮)이 신동아건설도상(新東亞建設途上)에 있어서 중대한 임무를 수행(遂行)할 역사지리적의의(歷史地理的意義)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過去) 삼십년간(三十年間) 한때는 일시적(一時的) 울분(蔚忿)을 참을 수 없다 하여 창천(蒼天)에 그 한(恨)을 호소(呼訴)도 하고 민족주의(民族主義)의 사회주의의 세계에서 그 방향을 잡으려 했으나 그러나 이것은 정도(正道)를 가려는 일시적인 암야(闇夜)의 행로(行路)였고 오늘에 있어서는 여명(黎明)을 고(告)한 동천(東天)의 힘찬 태양과 같이 내선일체 정신(內鮮一體 精神)에 입각(立脚)하여 조선민중(朝鮮民衆)은 이제야 비로소 정로(正路)에 들어서 만선 일여장정권옹징(滿鮮一如蔣政權膺懲)의 혈열적(血熱的)인 방향(方向)으로 진군(進軍)하게 되었다. 우리는 커다란 역사적 전환기(歷史的轉換期)에 있어서 일본정신(日本精神)의 발양(發揚)을 더욱 강조하여야 하는 것이니 여기 오인(吾人)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일본정신발양(日本精神發揚)이란 슬로건이 국민의 사상(思想)과 감정(感情)에 용해(溶解)되어 이것이 실천화(實踐化) 되여야 할 것이다.

독일(獨逸)에 있어서 나치즘이 전 국민의 총력량(總力量)을 집중하여 나치즘 독일(獨逸)의 진군(進軍)은 만주(滿洲)의 천지(天地)를 석권(席捲)하는 오늘 일본정신(日本精神)의 동양전체화(東洋全體化)에 대한 실천행정(實踐行程)은 착착진행(着着進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중(民衆)의 참된 각오와 재인식(再認識)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독일(獨逸)에 있어서 알

바이트틴스트 산하(傘下)에 제단체(諸團體)가 포함(包含)됨과 같이 국민정신총동련맹산하(國民精神總動聯盟傘下)에 일체(一切)의 단체와 조합(組合)을 연결시켜 구성(構成) 하므로써 좀 더 일본정신(日本精神)의 발장(發場)과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이상(理想)을 실천화(實踐化) 시켜야 될 것이다. 지금(只今) 조선(朝鮮)은 바야흐로 농촌진흥(農村振興) 자력갱생(自力更生)등 당국(當局)의 지도방침(指導方針)에 의하여 일반민중(一般民衆)은 점차(漸次)로 힘찬 생활이념(生活理念)에 입각(立脚)하여 총후국민(總後國民)으로써 건실(健實)히 노력하고 있거니와 우리의 정신(精神)은 오죽 불타는 의욕(意慾)으로써 내선일체(內鮮一體) 자력갱생(自力更生) 총후활동(銃後活動)이란 정신(精神)으로 이 시국(時局)에 처(處)하여 매진(邁進)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의 각오(覺悟)는 더욱 비상(非常)하여야 할 것이다. 만주국(滿洲國)이 인방(隣邦)으로써 우리와 제휴(提携)하는 악수(握手)가 굳고 이제 북중남지(北中南支) 유신정부(維新政府)가 우리와의 공동보조(共同步調)로써 신동아건설(新東亞建設)의 일련단결적행정(一聯團結的行政)에 나아가는 오늘 동양(東洋)의 천지(天地)는 일본정신(日本精神) 밑에 완전히 움직이게 되었고 또 우리의 방공진(防共陣)의 맹방(盟邦)으로의 독이양국(獨伊兩國)이 구주(歐洲)의 천지(天地)에서 영불소(英佛蘇)와 대립항쟁(對立抗爭)하고 있는 이때 구주(歐洲)와 동양(東洋)은 완전(完全)히 우리의 맹방 삼국(盟邦三國)에 의하여 이분천하(二分天下)가 되었으니 여기 국민의 각오(覺悟)는 굳세어서 이 대업(大業)이 완성되도록 일치단결(一致團結)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 우리 국민의 각오(覺悟)가 다시금 필요한 것이니 오인(吾人)이 오늘 다시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이념(理念)을 고조(高調)하는 소이(所以)가 여기 있는 것이다.⁴⁾

3. 내선결혼(內鮮結婚)의 장려

4) 黃敏湖, 같은 책, pp. 761~762

조선에서만 1926년에 50~60건 이었던 것이, 1935년 250건, 1939년에는 2,405건에 달했다. 1938년부터 1943년까지 5년간 5,45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연 평균 1,092건이었다. 사실혼은 그보다 많았다고 한다. 1938년 8월에 총독부에 시국대책협의회가 설치되어 내선일체를 철저하게 시행할 것에 관한 건이 자문 의제로 제출 되었다. 이에 따라 “내선인의 통혼을 장려할 적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 등 12항목이 의결되었다. 1939년에는 언론인 박남규(朴南圭)에 의해 내선일체(內鮮一體) 실천사가 결성되었고, 잡지 내선일체에는 내선 결혼창도 실천 같은 슬로건이 게재되었다. 1941년 3월 국민총력 조선연맹 총재이자 총독인 미나미지로는 모범적인 부부에게 표창장과 기념품을 증정했으며, 결혼식에는 경찰서장 등이 참가 했다. 하지만 ‘내선결혼’ 장려를 총독부의 술책으로 판단해서 조선인을 차별하고 결혼에 반대한 사람도 많았다.⁵⁾

‘일본적’ 가족의 형성을 통한 동화의 결실에 목적을 두고 있었던 내선결혼이 당사자 사이의 성적 매력이나 보호에 대한 희망과 같은 개인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졌든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였든, 결혼과 친족에 대한 양국의 기준 사회적 통념을 파괴시킨 부적합한 결혼이었던 만큼 그 당시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도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1920년대 당시 사회 내에서는 내선결혼에 대한 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언론에서는 내선결혼이 정략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그것은 “인류의 양심에 비추어 야비하고 비열한 심사”(동아일보 1922년 1월 9일자)라고 비판하였으며 일본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내선결혼에 대해 분개하고 있었다(동아일보). 내선결혼이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의도에 영향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내선결혼은 조선과 일본 양국의 전통적 결혼관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던 만큼 결혼 당사자들은 각각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더 나아가서는 당시 식민지적 지배와 피지배라는 현실인식 정도에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5) 다카사키소지,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 한영문화사, 2006, p168~p169

4. 내선결혼이 이루어진 환경

당시 내선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환경은 무엇이었을까? 환경은 강점기를 전후로 조선인과 일본인들의 일본과 조선으로의 이동으로 형성되었다.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일본의 토지조사사업에 따른 농민층의 생활기반의 상실, 일본의 자본주의체제의 출현과 전쟁수행에 따른 노동력의 수요증가라는 국내·외의 변화는 경상 남·북도와 전라남도 제주도의 조선인들을 일본으로 흡수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일본국내, 특히 규수(九州), 나가사키 현(長崎縣), 도토리현(鳥取縣), 히로시마현(廣島縣) 등에서는 명치유신에 따른 정치·경제 구조의 변동 속에서 국내의 여러 모순이 노정되고 있었고 노일전쟁 이후 한국에서의 일본의 위상이 확보되자 국내의 몰락상인·사족·빈농들이 여권휴대의 불필요에 촉진되면서 조선을 비롯한 해외로 도항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인구의 국제적 이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국인(異國人)과의 상호 접촉을 일으키고 조선과 일본에서의 내선결혼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거기에는 1937년의 역사적 상황에 의하여 이 시기를 전후로 한 인구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많은 조선 남성들이 일본으로 강제 연행되어 간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는 현상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39년부터 1942년 사이에 일본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수의 증가와 내선결혼수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표 1 일본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수

연도	계획수(명)	동원수(명)				
		탄광	금속광산	토건	공장 기타	계
1939	85,000	34,659	5,787	12,674		53,120
1940	97,300	38,176	9,081	9,249	2,892	59,398
1941	100,000	39,819	9,416	10,965	6,898	67,098
1942	130,000	77,993	7,632	18,929	15,167	119,721

일본인 여성의 가까운 이웃의 조선인 남성과 일상생활 속에서 접촉하거나

소개로 만나 결합 또는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 가운데 약84퍼센트가 주로 도시에 거주하였다. 도시에 인구가 집중 되어 있다는 점은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접촉빈도를 높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조선인의 시기에 따른 거주 지역별 비율변화를 보면 1910년 말에는 후쿠오카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오이타, 히로시마, 야마구치, 오카야마 등 이른바 키타규수 산요우肯(北九州山陽圈)에 40.7퍼센트, 1920년 말에는 오오사카, 효고, 교토 등 이른바 한신肯(阪神圈)에 36퍼센트, 1930년 말에도 한신肯에 38.7퍼센트의 거주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일본인 층의 출신도 위의 지역이 많다는 점을 볼 때, 내선 결혼이 이루어 질수 있는 환경이 바로 재일조선인들과의 접촉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조선남성의 높은 내선결혼율의 원인으로서 생각 할 수 있는 것이, 단신(單身)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남성들이 많았다는 점이다.⁶⁾

이로부터 약 6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재한 일본인 여성의 친목단체 부용회(芙蓉會)⁷⁾에는 약 천명이 모이고 있다. 이들 가운데 60%는 조선인 남편과 사별하거나 헤어진 사람들이다.

5. 한일 결혼자의 파탄

광복 후 일본인 총 철수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 당시까지 조선에 있던 조·

6) 최석영, 일본연구 학회지 일본 학 연보 제9집, 식민지 시기 ‘내선(內鮮)결혼’ 장려문제”논문 글 인용. 2000, pp259~294

7) 부용회는 한국정부가 공인하는 유일한 재한일본 부인들의 모임이다. 이 조직은 1962년에 설립된 야요이이회(弥生會)를 모체로 하고 있다. 이모임이 그 후 「재한일본부인회」로 바뀌었는데 한국 정부로부터 그 명칭을 바꾸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일본의 국화인 사구라도 아니고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도 아닌 막연한 이름의 부용회로 1966년에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모임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듯이 1920년4월에 이왕세자(李王世子) 은(垠)과 결혼한 일본 황족 이방자(李方子)여사가 명예회장이었다.

일 결혼 부부들의 경우 남편은 일본인이고 아내가 조선인다면 아내는 일본인이 된다. 함께 일본으로 돌아간 사람도 많았지만 그 중에는 아내를 남겨놓고 자식들만 데리고 돌아간 사람도 있었다. 남편이 조선인이고 아내가 일본인인 경우, 영주할 결의를 하지 않는 여성은 일본으로 귀국을 결심했다. 그러나 남편에 대한 애정이 강한 경우나 임신을 하고 자식이 있는 경우는 귀국이 간단치 않았다. 조선인 아내는 일본으로 갈 수가 있지만 조선인 남편은 일본으로 갈 수가 없었다. 어떤 부인은 남편인 조선인 남성을 일본으로 데리고 가고 싶다고 신청했지만 이는 결코 허락되지 않았다. 개인적인 애정도 민족을 달리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민족을 초월한 공감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을 결심해야 했다.

한 부인은 자신의 인생이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위해 희생되었다고 말한다. “마을 회장과 경찰서장이 한통속이 되어 나를 충동하여 모범부부라고 추켜세우고 수많은 축사와 신문에까지 나오게 만들어 무리하게 결혼 시켰는데,⁸⁾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도망쳐 버렸다. 우리들은 일본에게 버림받았고 세상에는 신도 부처도 없다”고 말한다.

조·일 결혼자 중에는 조선인이 정용으로 일본 훗카이도의 광부⁹⁾로 된 사람과 일본인 광부의 딸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나는 나를 속인 사내를 죽여 버렸습니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로 뛰어 들어온 처녀, 사랑에 살고 사랑에 미치고, 점차 시들어 가는 몸, 그것이 조·일 결혼 자들의 단면도 였다.¹⁰⁾

해방 후, 일본인 처들은 각오를 하고 조선에 남았지만 주위 사람들의 눈총과

8) 국민총력 조선연맹(1938년 7월 결성됨)에서는 1940년 1년 동안 조선 전국의 내선결혼의 상황을 조사하여 당사자들에게 1941년 춘계황령제(春季皇靈祭)를 기하여 각 도의 연맹을 통하여 기념품으로서 미나미 지로우(南 次郎) 총독 겸 총재가 휘호한 내선일체를 표현한 족자와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9) 일본은 근로보국대의 명목으로 200만 명 내외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하여 훗카이도 지역 등, 일본전역의 탄광촌과 군수공장 및 토목공사 군 시설 공사에 많은 수의 조선인을 동원하였다.

10) 모리타 요시오 (엄호건 편역), “한반도에서 쫓겨 가는 일본인” 케이제이아이 출판국, pp. 1995, 94~96

가해자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다.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인에 대한 침략적 피해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로 일본을 상징한 벚꽃나무가 동내에서 발견되면 베어버리거나 뽑아버릴 정도로 감정이 격하였다 한다.¹¹⁾ 그 여파로 조선에 남은 일본인 쳐 들에게는 주위로부터 따가운 시선이 집중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해방 후 조선의 남성을 따라 머나먼 이국땅으로 온 일본여성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한국적인 생활문화와 양식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식 저변에는 일본인이라는 강한 민족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머니들의 휴식 공간

11) 후꾸다 마사코 할머니의 증언

제3장. 작품론

1. 작품의 성격과 배경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사진들 가운데에서 초상사진과 인물을 주제로 한 이미지들을 쉽게 볼 수가 있다. 초상사진은 사진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사진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재라서 인물이 가장 많은 사진가들의 주제가 되어왔다.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은 사회의 전반적인 면을 기록하였고 인물들의 살아온 삶의 자취와 정신을 담는 초상으로서 인물사진의 성격은 인간의 역사로도 볼 수 있다. 사진을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던 미국의 사진가인 알프레드 스티글리츠(Alfred Steiglitz)는 자신의 가족이나 주변 인물들을 촬영하였고, 로워 웨스트 사이드(Lower West Side)에 거주하는 중산층이나 빈곤한 사람들의 초상과 삶을 기록하였다. 나다르는 초상사진의 역할을 제대로 실천해 낸 최초의 사진가로 평가되고 있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사실적인’ 실재에 입각한 역사적인 기록으로써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욕망과 진실에 관한 표현방법으로써 진정한 의미를 가지며 다큐멘터리 사진초상은 우선 확실성이라는 사진의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큐멘터리 사진 초상은 촬영된 대상이 존재하거나 또는 존재했었다는 것을 담보로 하여 객관성을 획득하게 되므로, 과학적 역사적으로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

다큐멘터리 초상 사진은 복잡한 인간얼굴을 세부 특징과 형태별로 분석하고 분류하는 유형학적 사고에 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비교와 검토를 원활하게 하는 형식적 규범을 채택하고 있으며, 촬영방식은 모델의 얼굴은 무표정을 지향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모델은 배치와 인물중심을 규격화 했으며 카메라 메카니즘으로부터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여 인간의 상징적 표상인 얼굴을 어여

한 우회 없이 냉정하게 재현하는 19세기 다큐멘터리 초상사진에서 비롯되었다.

19세기 후반의 다큐멘터리 초상사진은 비정상적이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물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상류층에게도 다큐멘터리 초상의 형식을 적용하였으며, 20세기 초상사진은 일상적인 인물사진과 초창기 초상사진과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대부분의 인물사진이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불리는 범위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

뷰먼트 뉴홀(Beaumont Newhall)은 “다큐멘터리는 역사적, 사실적, 현실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우수한 기록사진은 노골적인 카메라의 기록과는 다른 사실에 대한 깊은 존경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하려는 열망과 특징을 지닌다”¹²⁾고 언급 하였다. 수많은 인물사진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는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더 넓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큐멘터리 초상사진은 단순히 정보 전달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의 감흥을 불러 일으켜 의식을 깨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전통적인 다큐멘터리 초상사진의 특징은 인물에 대한 관찰과 표현에서 실체가 보이지 않는 사회적 상황으로 옮겨진 점이며,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사진의 주제는 물론 소재와 대상, 그리고 스타일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현대의 다큐멘터리 사진은 단순히 정보전달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사진가의 감정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을 함께 설명한다.

1) 아우구스트 잔더(August Sander, 1876–1964, 독일)

아우구스트 잔더는 20세기 초 독일 사진계를 이끈 작가들 중 하나이다. 그는 사진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한 방식으로 독일의 모든 계층들의 인물 사진을 독창적인 스타일로 기록하였다. 그의 첫 번째 작품집인

12) 뷔먼트 뉴홀(1996). *기록으로서의 사진*, pp. 29–35

『우리 시대의 얼굴(Face of Our Time)(1934)』은 라즐로 모흘리 나기(Laszlo Moholy-Nagy, 1895-1946)가 주축이 되었던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실험적인 사진을 바탕으로 하였다.¹³⁾ 1900년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그의 작품은 다음의 3가지 스타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가정(집)에서 기록된 인물사진, 둘째, 로맨틱한 픽토리얼리즘¹⁴⁾을 포기한 사실주의, 셋째, 사진가, 영화 제작자, 삽화를 위한 편집자들의 접근 방법을 기초로 한 철저한 다큐멘터리 스타일.¹⁵⁾

20세기 초까지 거의 모든 포츄레이트는 풍부한 자연광을 이용한 스튜디오에서 촬영되었다. 포즈는 과장되었고, 주변의 모든 것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깔끔하게 칠해진 배경, 고가의 가구들, 값비싼 직물들로 가득 채워졌다. 그러나 잔더가 촬영한 독일 국민들의 인물사진은 이와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동시대의 다른 인물사진과 잔더의 사진이 근본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13) August Sander, 1904-1959, Aperture 83-84, Aperture Foundation, 1980, p. 6

14) 영국의 사진가 오스카 구스타브 레일란더 Oscar Gustave Rejlander가 1850년대에 만든 작품 <인생의 갈림길 The Two Ways of Life>은 30장의 사진을 조합하여 만든 것이다. 일단 밑그림을 그린 후 부분 부분 나누어서 한 장씩 사진을 찍어 그네거티브들을 인화지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부분은 까만 천으로 가려 빛을 주는 방법으로 차례차례 30장을 한 장의 인화지 위에다 인화한 것이다.

밑그림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인지 기본적인 느낌이 상당히 낭만주의 회화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 조합사진은 당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같은 전문 예술품 수집가에게 컬렉션 된 최초의 사진작품이 되었다. 초기 사진가들은 대부분이 2류, 3류 화가 출신이었고, 그래서인지 ‘예술가’라는 타이틀에 대한 열망과 명예욕 같은 것이 유별났다고 한다. 그들은 사진가로 어느 정도 경제적 성공을 거두자 사진을 예술로 끌어올리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다. 당시 화가 출신의 사진가들에게 예술이 무엇이었을까? 사진을 예술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사진을 그림처럼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진을 회화의 기준에 맞춰 제작하려는 당시 사진가들의 노력은 눈물겨운 것이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 장의 사진을 교묘히 합성해서 마치 낭만주의나 자연주의 회화작품처럼 만드는가 하면, 사진에 수정을 가하고 붓질도 서슴지 않았으며, 밑그림을 그려서 사진을 갖다 붙여 인화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이런 식의 사진작업을 사진역사에서는 픽토리얼리즘이라 부른다. 픽토리얼리즘 사진은 많은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예술매체로서의 사진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사진을 예술의 반열에 올려놓으려 했던 최초의 노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5) 정영혁, “기록으로서의 초기 다큐멘터리 사진에 관한 연구”, 한국다큐멘터리사진학회 Vol. 4, 2003, pp. 89-99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인물들은 한결같이 사진기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으며, 둘째, 배경을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와 대상 인물들과의 거리가 늘 일정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므로 그의 인물 사진들은 전신이 아니면 거의 전신사진에 가깝다. 이것은 상식적인 사진기법으로 볼 때 다소 어눌함을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는 이를 역설적으로 역이용하고 있다. 대상 인물들을 일률적으로 규격화함으로써 삶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 돌아가고 있는 한 부분으로서의 인간을 표현한 것이다.¹⁶⁾

잔더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모델을 있는 그대로 대담하게 바라보기 위한 선택이었다. 모델의 사회적 전형성을 드러내고 포착하기 위한 가장 독창적인 잔더의 발명은 무엇보다도 모델에게 포즈의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그 포즈가 모델이 속한 집단의 사회적 특성을 발현하도록 조정한데 있다. 포즈의 선취권은 모델에게 있지만 잔더는 그 포즈를 활용하여 그가 속한 집단의 심리적 현실을 드러나게 했던 것이다. 모델의 자세에 의해서 드러나는 자기 과시가 실은 자기시대의 경제와 문화가 주입한 사회적 산물임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원형을 표출하고자 한 그의 접근방법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인물사진에서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다. 잔더는 독일의 각 사회적 계층들이 동시대의 사회조직 속에서 저마다 떠맡고 있는 사회적 역할을 인물사진을 통해 전체 독일사회를 기록함으로써 사회 환경과 문화적 배경 등의 전체적인 힘이 인간의 용모와 공통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밝히려 했다. 그는 자신의 힘이 미치는 자기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독일 민중을 사진에 담으려 했다.¹⁷⁾

이러한 잔더의 사진은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유지하고,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태도에 있어서 유형학적인 습성을 취득하고 있다. 연구자가 일제 강점기 일본인 쳐들을 촬영하는데 있어서 잔더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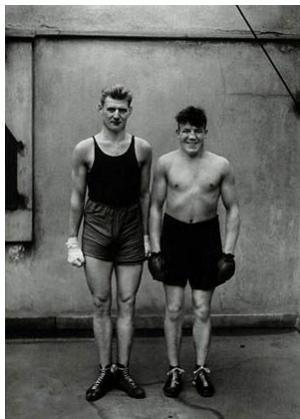
16) 김석원, “다큐멘트와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한 재고-아우구스트 잔더의 유형학적 사진을 중심으로”, *한국다큐멘터리사진학회지* Vol. 3, 2002, pp. 21-29

17) 정길성, “다큐멘터리로서의 인물사진에 관한 연구,” 2003

식을 차용한 이유는 잔더는 형식적인 방법으로 카메라의 메커니즘이 가지고 있는 선명한 초점(pan focus)을 이용해서 대상의 모습에서 구체적이며, 섬세한 재현방식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이는 잔더의 객관주의적 시각과 합당한 방법론으로 받아들여진다. 내용상으로는 사진 찍히는 사람이 똑바로 정면을 향하게 하고 있으며, 확인될 수 있는 분류의 체계성과 전형성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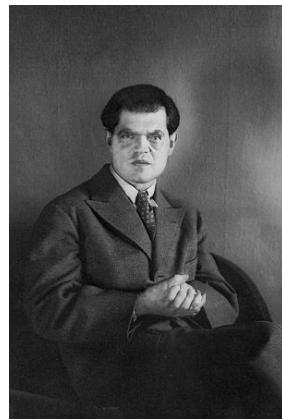
(참고사진1)

Boxers, 1929



(참고사진2)

Der Dadaist Raoul Haussmann Berlin, 1928



2) 티나 바니(Tina Barney, 미국)

부유한 미국 상류집안에서 태어난 티나 바니(Tina Barney)는 가족과 친구들이 겪는 관례와 풍습을 면밀한 관찰자로서 20년 동안 그녀의 가족과 친한 친구들의 모습을 연대기적으로 찍어오고 있다. 티나 바니는 자신이 잘 아는 사람들의 결혼, 졸업, 생일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오는 평범한 긴장에 관심을 갖는다. 형식은 스냅사진으로 객관적으로 기록한 다큐멘터리처럼 보인다.¹⁸⁾

18) 이영우. “세계사진가 탐구”, 줌인 2005년 2월호, 2005, pp. 23~26

앤디 그룬버그(Andy Grundberg)는 그녀의 사진집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티나 바니의 사진은 다큐멘터리 매체로서의 사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적용되어 왔다. 가이드와 참여자라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선택한 채 그녀는 그녀가 관계하고 있는 문화를 해석하는 위험을 선택하고 있다. 사회적 행위와도 같은 그녀의 이미지는 전략적인 측면과 무의식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⁹⁾

우리가 해마다 가지는 휴가의 모습을 통해 그녀는 수많은 가족을 스냅 솟트로 촬영한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현대인들의 삶의 느낌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저널리즘과 같은 습관적인 모든 이미지보다 더 진실 된 느낌을 일으키게 한다. 우리는 이들의 환경을 에워싸고 있는 값비싼 그림과 가구, 그리고 이들의 특징과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와 구별되는 문화적 특징을 발견하게 되며, 이것은 바니의 사진이 가진 하나의 전략적 측면이라 할 수 있겠다.

티나 바니의 사진형식은 4×5 inch 대형카메라를 이용한 섬세한 세부묘사와 풍부한 색채로 완벽한 구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대형필름이 묘사해내는 세부적인 디테일과 현실감 있는 묘사능력을 최대한 살려서 실제상황처럼 보이기를 바랐다. 즉, 그녀의 사진이 꾸며지고 조작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확대된 이미지가 세밀해서 조작처럼 안보이고 실제 상황처럼 보이는데서 오는 미묘한 느낌을 창출하고 있다. 바니의 사진은 대형카메라와 삼각대를 가지고 사진을 찍기 때문에 그녀의 사진에는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감돌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진이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을 다루었다는 점과 스냅사진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처럼 보이기도 한다.²⁰⁾

이러한 티나 바니의 사진은 대상의 인식에 있어 현실과 거리가 먼 허구적인

19) Andy Grundberg, "Tina Barney: An Afterword", *Tina Barney-photographs Teacher of M anners*, Scalo, 2006

20) 이영우, zoomin.co.kr 2005년 2월호 “세계 사진가 탐구” 23p~` 26p

상황이 허구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써 연구자가 일제 강점기의 일본인 처에 관한 사진 연구에서 바니의 사진형식을 차용한 이유는 휴식의 공간인 주위의 환경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공간의 주인인 일본인 처를 모델로서 연출하여 상황을 전개하여 모델로 인하여 추가되는 이미지 주위의 사회적 상황의 전체를 심리적 측면에서 해석하려 하였다. 이들의 이미지는 모델을 둘러싼 주위의 상황에서 사회적인 문화를 해석하며 그로인한 시대적인 인식의 접근을 유도하는 수단으로써 모델을 이용한 것이다.

(참고사진3)

그레이엄 크레커상자 1983



(참고사진4)

마리나의 방



2. 작품의 이해

1) 형식적인 측면

리차드 아베돈(Richard Avedon)의 사진적 형식은 등장인물의 이마에 페인 주름살부터 희끗한 머리카락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감추지 않고 낱낱이 드러내기 위하여 주로 대형 카메라를 사용한다. 또한 그의 사진은 대상의 핵심적인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부분적인 요소들을 간결하게 처리하여 우선적으로 주인공이 처해있는 일체의 현실적 상황 묘사를 생략해 버리며, 인물 처리도

단순히 카메라 앞에 세우고 렌즈를 바라보게 하고 셔터를 누르는 것으로 끝난다. 아베든의 작품 대부분은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하며 항상 흰색 배경지를 사용하여 배경을 처리함으로써 인물에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함으로 불필요 한 것은 과감히 제거하며 8×10대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디테일을 살려 실물크기로 프린트한다.²¹⁾

본 연구자는 일본인 처들을 연구하면서 이들이 처한 환경을 반영한 작업으로써 기존의 다큐멘터리 사진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구성적인 면에서는 리차드 아베돈(Richard Avedon)이 대상의 핵심적인 특징을 강조하기 위하여 배경 처리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이미지를 완성하였던 것을 차용하였다. 아우구스트 잔더(August Sander)의 사진이미지들은 대상에 접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인물들을 하나같이 정면을 바라보게 하여 인간사회의 구조적인 면을 단적으로 보여 주려고 하였으며, 연구자는 포스트 리얼리즘사진이 미장센 수법으로서 사회의 전반적인 풍습이나 일상적인 주제의식으로 작업한 작가들 중 티나 바니(Tina Barney)의 사진형식 또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의 작품에서 읽을 수 있듯이 사진속의 대상화된 인물의 핵심적인 면을 부각시켜 조직화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한 현실을 이야기하며, 연구자의 모델 포즈에 있어서 일체화와 시선의 정 방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욕망과 진실에 관한 표현 방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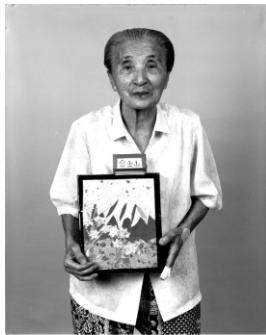
2) 작업의 의도

본 연구자의 <작품 35, 36>에서 고이께 나미꼬 할머니는 해방 전 조선인과 결혼을 하였다. 해방 후에는 남편을 따라 조선으로 와서 살던 중에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젊은 나이에 사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자식과 함께 이국땅에서 일본인의 신분으로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21) 육명심, “세계사진가론”, 열화당, 1997, p. 124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의하여 육십년 이상을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일본을 대표하는 후지 산을 색종이로 찢어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본 연구자가 “할머니가 가장 아끼시는 것을 들고 사진을 찍으시지요?”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바쁜 걸음으로 가더니 후지 산 작품을 가지고 나왔다.



그렇다면 할머니의 심정은 항상 일본에 계신 부모님과 고향생각에 그리움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전제로 작품을 보면 사진속의 내용에서 붕대 감은 손과, 후지 산, 단정한 모습과 얼굴표정에서 발견되는 것은, 결코 지워 버릴 수 없는 놀라움이며 삶이란, 고독과 상처, 그리고 그것들의 미적 승화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려는 듯하였다.

방에서도 <작품 38> 흑백사진 이미지 속에서 할머니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정면에 시선을 두고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있다. 할머니 주위를 둘러보면 기모노 복장을 한 일본풍의 인형들, 각종 액세서리, 틀 안에 넣은 사진들에서 문화적인 면과 습관, 관습, 등 사회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요네모토 도끼에 할머니 <작품 15, 16>는 항상 ‘나를 낳아준 부모님께서 나의 돌 사진과 어린 시절의 모습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것 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태어나 첫 번째 맞은 생일날에 부모님은 땔을 위하여 사진관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오랜 세월 간직할 수 있도록 앨범 속에 넣어 날짜까지 써주셨다고 한다. 사랑과 정성의 표식인 이 사진에서 자신의 실제모습을 평생 보아왔을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의 추억

과 감정이 담긴 사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심적인 갈등을 가라 앉히게 되어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방탕의 길을 가지 않고, 조국과 부모님께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오게 되었다고 한다. 요네모토 할머니에게는 이 돌 사진이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중효로써 그 역할을 하였고, 사진 옆에 쓰여 진 부모님이 썼을 법한 글씨가 연구자의 시선에 강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연구자의 작품에서 사진이 남기는 본질이란 언어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추가할 수 있으며 작품에 내재된 현실을 발견함에 있어 이해의 폭은 감상자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데 연구자는 롤랑바르트가 펼친 이론으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롤랑 바르트의 카메라 루시다에서 저자는 사진에 있어서 스튜디움(studium)과 품그툼(punctum)에 관해 언급하면서 사진의 분석을 통해 구분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을 정치적인 증거물 혹은 역사적인 증거물로 음미함을 시각적으로 분석이라 하였고, 인간의 욕망과 잡다한 흥미 분별없는 취향 따위의 대립과 같은 넓은 범위로도 볼 수 있으며 사진가의 의도에 의한 감동과 흥미로써 일종의 교육과 문화적인 면에 관심을 유발시키며 존엄성과 가족주의, 전통주의, 성장한 차림, 사회적인 위치를 스튜디움으로 정의하였다.

반면에 품그툼은 나의 마음속에 거의 연민에 가까운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아무리 순간적이라도 잠재적으로 확장의 힘을 가진다. 또한 어떤 하찮은 대상을 통해 나 자신을 들어내는 것으로서 그곳을 통해 나를 ‘찌를’ 수 있으며 세부가 온통 사진에 관한 나의 시선을 흥분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에 대한 관심의 격렬한 변화와 번개 같은 영감을 일으켰다. 그리고 하나의 작은 흔들림과 깨달음을 유발시켜 선명한 윤곽을 갖건 혹은 그렇지 않건 간에 하나의 추가라는 것이다. 즉 품그툼은 부분적인 대상을 말하며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진의 세부로부터 화살처럼 날아와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고 하였다.²²⁾

구도치요 할머니는 <작품 19, 20> 나이 차이가 많은 한국인과 살았으나 오래 전부터 혼자 살아오신 분이다. 손을 펴서 허벅지에 붙이고 카메라를 주시하고 얼굴에는 주름살과, 움푹 패인 눈 주위로 선명하게 보이는 저승꽃이 가득 피어 있다.

본 연구자의 시선은 해방 전에 조선인을 만나 육십년 이상을 우리나라에 살면서 갖가지 역사적인 현장을 목격했을 움푹 패인 눈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노동을 했던 두 손과 행상을 하면서 휘어진 허리 안면의 주름과 미묘한 표정 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신체적인 현상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들 모두가 일본에서 수십 년 전에 한국으로 시집온 일본인 처임이 모델들의 표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들의 생활공간의 거울, 서랍장, 약봉지, 사진액자, 십자가, 시계, 침대, 인형 등 이 할머니들의 개별적인 인상들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롤랑바르트의 카메라 루시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베든이 촬영한 ‘노예출신’ 윌리엄 케스비<참고사진 5>의 인물사진은 노예 신분의 본질이 사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이 사진의 특징은 강렬하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서 보는 사람은 노예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노예제도가 우리 시대와 그리 멀지 않은 때에 존재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역사적 증언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록 과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험적이고, 또한 반드시 귀납(歸納)적인 것이 아닌 증거들의 새로운 질서에 의해 증명된다.²³⁾

롤랑바르트는, 또 다른 풍그툼은 시간으로서의 존재적 특징이 시간의 압축으로써 이야기 한다고 하였으며, 대상에서 발견된 역사적인 면을 사진 속에서 생생히 읽을 수 있으며 거기에는 언제나 압축된 ‘시간’과 죽음으로 설명되어진다고 정리하고 있다.

또한, 시간은 보여 지지 않은 존재여서 추상적이며 시간적 의식은 주위의 환

22)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카메라 루시다” 사진에 관한 노트, 1986, p31~p59

23) 롤랑바르트(Roland Barthes)“카메라 루시다” 사진에 관 한 노트, 1986. p81

경적인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사진은 단지 존재했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과거 상태의 실제이며, 그것은 동시에 현실로서 사진은 이미 존재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존재했던 것을 말한다고 언급하였다.

(참고사진 5)

리챠드 아베든 노예출신 월리엄 케스비



제 4 장. 역사적 증언

1. 나자레원 할머니들의 삶의 이야기

후쿠다 마사코 <작품 33, 34>

결혼은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다. “당시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랬나 봐,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모르는데 힘들게 살아온 것 때문에 부모나 동기간에 멋떳하지 못했다. 군인인 남편께서 성격이 깔끔해서 그런지 전쟁이 끝나고 나자 패인이 되어 버렸다. 내가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왔고 어렵게 살다보니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동생을 통해서 나중에 알았다”면서 목이 잠긴다.

“정말로 기가 막힌다.”

해방 후 남편 따라 한국으로 온 것이 당연시 되었고 시집생활이 힘들어서 고향생각에 울다가 신랑에게 얼굴을 맞아 생긴 흉터를 보여주면서 “비단 나뿐이 아니다, 한국에서 살아온 일본인 처들은 모두가 그랬다. 해방 이후 한국으로 신랑 따라 와 보니 시부모님과 친척의 자식까지 있고 거기다가 문화와 경제적 수준차이로 인하여 현지의 삶에 적응하지 못한 일본여인들은 현실적인 상황의 비판으로 자살하는 분들을 내가 살아오면서 많이 보았다.”

“다행히 나는 시어른과 주변사람들을 잘 만나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적응을 빨리 한 것 같다. 여순 반란사건으로 한국에서의 이념적 대립으로 인하여 불행했던 사건현장을 직접 보았고 대나무 창으로 사람을 살육하는 장면들을 보았으며 좌익으로 몰려 시어머니와 같이 총살을 당할 뻔 했던 일은 생각하기조차 싫다”고 한다. 할머니의 생각은 지금도 내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혹시나 아들자식을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낸 부모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줄까 염려하여 숨기고 싶은 것이므로 부모심정으로 이해 바란다면서, 이제는 양국이 정확한 안목으로 역사적 기록을 남겨줌으로써 후대에는 잘못된 역사를 바탕으로 양국국민 모두가 화해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²⁴⁾ 라고 말한다.

고이께 나미꼬 <작품 35, 36>

해방 전에 조선인 남편을 일본에서 만났고 해방이 되고 조선으로 들어와 시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언어문제와 식생활 환경과 문화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조선인 남편은 일본을 드나들며 장사를 하였으며 사업이 힘들어지자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조선인 남편은 자살을 해버렸다고 한다, 그 후 할머니 혼자 자식을 키우며 시집인 부산에 사는 아이들 고모의 도움을 받아 어려웠지만 참고 살았다.



”나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울었나 봐, 그래서인지 지금은 눈물이 안 나와, 어려울 때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지만 집안의 반대를 외면한 죄인이고 잘 살지도 못한 내가 어떻게 일본으로 갈수가 있겠는가 지금도 갈 생각 없다“고 하면서,”지금은 자식과 손자 손녀가 자주 다녀가니 외롭지 않다, 그렇지만 옛날을 생각하면 조선으로 시집 온 것이 정말 후회가 된다”고 고개를 숙인다.²⁵⁾

요네모또 도끼에 <작품 15, 16> 별명이 교장할머니.

일본 방송국에서 할머니에 관한 내용으로 방영된 후 일본의 친인척을 만나게 되었다. 소화시절 앨범과 돌 사진을 보여주면서 학생시절에는 연극도 했고 활동적이었다고 하면서 역사의 산 증인들이 이곳 나자례원에서 2, 30년을 생

24) 후쿠다 마사꼬 할머니. 일본 나가노겐에서 출생

25) 고이께 나미꼬 할머니. 일본 나가노겐 출생

활하고 계신 분들 때문에 외로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한다. “이제 몇 년 후면 중연해줄 사람이 없을 거요,”라고 말하는 할머니는 이 연구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분이다.

할머니는 이곳 복지시설에서의 생활이 원장의 특별한 보살핌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호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도 이렇게 시설이 좋은 곳은 없다. 내 조국이 부자라서 일본할머니는 늙어서 호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운동하고 항상 감사하고 재미나게 살아야 한다.”

“이제는 아무 불만도 없고 여기가 우리들의 제2의 고향이다. 살았던 정으로 특히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이제는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과 함께 할머니는 자신의 돌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의 부모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남겨주셨기에 내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것 아닌가. 키워주신 감사한 마음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도끼에 할머니는 감포 바다를 바라 볼 때는 내 고향이 저기였다고 생각하면 슬퍼지지만, 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두 번째 고향으로 우리들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왔고 죽어서도 이 자리에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자례원에서 생활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57명으로 나도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죽으면 나자례원에서 준비해놓은 납골당이 있으니 나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나도 가야지요. 그러나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일본여자로 조국을 더럽히지 말고 조국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요,”라는 말과 함께 납골당 이야기를 계속했다²⁶⁾.

“한국의 산천과 우리들을 잘 돌봐주신 주위의 모든 분들이 너무나 감사 하지요” 비록 異國땅에서의 삶이 슬픔과 고통속의 연속된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방탕하게 살지 않고 의지대로 살아 올 수가 있었고 할머니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주름살과 저승꽃을 보면 모두가 자기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26) 도끼에 할머니가 계속 이야기했던 일본인 채 납골당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다. “나는 죽으면 육신은 한국에 남지만 그러나 나의 혼은 고향인 조국 일본에 가고 싶다.”

역사를 대변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도끼에 할머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이 곤란한 (당시 7세) 아이를 입양하여 훌륭히 키워내 일본으로 시집을 보냈는데 얼마 전 패암으로 먼저 보냈다고 슬퍼하면서도 “내 손녀가 일본에서 성인이 되었다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하면서, “내가 눈이 어둡다고 글씨도 크게 써서 보내 온 거야”면서 자랑한다.²⁷⁾



경주시 감포읍 뒷산 8부 능선에 일본 방향으로 지어진 납골당 비석과 내부

이노우에 아야꼬 <작품 1, 2>

본 연구자가 주일 오전 시간에 나자레원에 도착해 보면 1층 로비에서 몇 분의 일본 할머니들은 화투놀이에 열중하고 있었고, 여기에 항상 이노우에 할머니가 함께했다. 할머니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모 없는 어린아이를 친자식 같이 보살폈으며 사망하기 전에 할머니 방에는 어린아이 장난감과 운동기구, 책, 어린이용 탁자 등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열심히 살아온 흔적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2006년 11월 사망하기까지 흐트러짐 없이 생활 하시다가 생전 그토록 그리던 일본의 고향땅을 바라볼 수 있고 일본인 쳐들이 먼저 가서 모여 있는 납골당에 묻혔다.²⁸⁾

27) 요네모토 도끼에 일본 야마구찌겐 시모노세끼시 나베아치 니죠에 출생

28) 이노우에 아야꼬 일본 사가겐 출생 (2006년 11월중 사망)



이노우에 아야코 촬영장면.



화투놀이 장면

야마모토 후미코 <작품 29, 30>

해방 전 야마모토 후미코 할머니의 고향마을에 한국 여인 여섯 명이 살았는데 모두가 할머니와 친구사이로 지내오던 중에 해방이 되어 한국국적을 가진 이분들은 모두 한국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당시 22세의 할머니는 이분들과의 이별을 인정치 못하고 따라가기로 마음먹고 부모님의 인감도장을 훔쳐 당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친구들과 같이 가기로 미리 약속하였다. 그리고 부모 모르게 가방을 친구 집으로 옮긴 뒤, 캄캄한 밤에 이층 방에서 길 쪽으로 난 창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친구를 따라 배를 타고 부산을 거쳐 완도의 작은 마을까지 올 수가 있었다.

처음에는 외국인 호적조사를 3년에 한번 씩 하여 동사무소에서 주는 배급으로 먹고 살았는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결혼을 해야 외롭지 않다는 권유가 있었고,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 역시 마을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 후 남자아이를 하나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으나,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에 교통사고로 죽고 이어서 남편마저 배사고로 죽어버려 할머니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러나 주위로부터 다시 결혼을 하라는 말에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남편과 자식을 만날 것인데 어떻게 시집을 또 가란 말인가”라면서 거부하였다고 한다. 젊은 나이에 혼자된 할머니는 농촌에서 어렵게 살면서도 일본에 있는 부모형제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내가 부모 몰래 한국에 와서도

정상적으로 잘 살았으면 연락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라면서 눈물을 훔친다.

“아버지는 기차사고로 일찍이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명이 긴가 봐” 그러나 지금도 일본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한다.

할머니 뒤쪽에 보이는 큰 가방이 일본을 떠나올 때 옷가지를 넣어왔던 가방으로 지금도 침대 옆에 두고 손수 관리하고 있다.²⁹⁾



사토 테루꼬 <작품 23, 24>

일본에서 회사에 다니면서 설이나 추석에 연극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고 코미디언 같이 인기가 좋았다. 중요한 행사에는 한국 노무자들도 관람을 하기도 하여서, 그때 한국에서 근로 보국대로 일본에 온 조선인을 직장동료의 소개로 만났다고 한다. 남자는 집이 가난하여 16세에 근로 보국대를 지원하여 일본으로 와서 생활을 하던 중에 사토할머니를 만난 뒤 해방이 되었다. 당시 22세의 사토할머니는 해방이 되자 한국인 청년을 따라 가야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고모님 몰래 일본 고향을 떠날 결심을 하였다. 그때 만약에 고모님이 이를 눈치 채고 가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배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린다고 하면 보내 줄 것이라고 설득하는 남자의 말을 순진하게 곧이곧대로 믿었던 것이 인생을 바꿔버린 출발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한마디로 기가 막혀요”

할머니가 도착한 곳이 강원도의 두메산골 마을인데다가 칠십 전후의 양쪽 시

29) 야마모토 후미코 일본 니이가다겐 나까까마나루 니쓰마이타이 출생

어른과 함께 살아야 했고 “신랑은 외동아들로 교육이 부족했던가 봐요,” 남자는 도박에 빠져 빚이 많은 관계로 혼자 도망을 가서 친척집에 있다가 군에 가서 죽어버렸다. 그때부터 할머니 홀로 임신한 몸으로 가난한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사내아이를 낳았다. “아이가 돌이되기 전에 시부모가 일본어 통역을 할 수 있는 학생을 통해서 나에게 사정을 물어본 뒤, 아이는 우리가 젖을 얻어 먹이면서 키울 수 있으니 너는 새로운 길을 가거라.”는 시부모의 부탁으로 우는 아이를 뒤로하고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언어의 장벽과 식생활과 같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고통은 주위의 아무런 도움 없이 현해탄을 건너온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사토 할머니는 일본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에 삼십 리 거리에 일본인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갔으나, 그 사람들도 역시 자신과 비슷한 딱한 사정임을 알고는 뒤돌아 설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나는 죽으려고 강원도의 어느 절벽에서 아이고 아이고 세 번만 하면 죽을 수 있다 하여 찾아 갔는데 아래를 내려다보고 너무 무서워서 못 죽고, 술을 먹으면 된다하여 고량주를 죽을 만큼 마셨는데도 죽질 못했어요.” 할머니는 산에 올라가 산나물도 뜯고 삼베와 물레질도 하면서 살아 가다가 중국음식점 을 경영하는 남자를 만나서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보다 나이가 20년

이상이나 많았어요.” 두 번째 남자도 매일같이 노름을 하여 생활을 위하여 사토 할머니가 직접 분식집을 경영하던 와중에 엎친데 겹친 격으로 남편이 중풍을 맞고 말았다. 결국 고생 하다가 중국의 고향으로 가족을 찾아 떠나 버리고 할머니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나는 남편 복은 정말로 없는 것 같아요.” 사토 할머니는 웃으면서, “해방 당시에 한국의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미리 알았으면 안 왔지요. 여기에 온 것을 얼마나 후회를 하였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일본에 편지를 했는데 내가 죽은 줄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일본 고향 가서 큰집 가족과 친지 여러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힘든 것은 아들자식을 돌도 되기 전에 떠나온 비정한 엄마로 살아야 하는 것이 고생이지요. 지금 살아 있으면 61세에요, 아마도 죽었지 싶어요. 살아있다 해도 키워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 도와 줄 수도 없고 해서 이제는 생각도 못해요.”³⁰⁾

사토다가 <작품 39, 40>

해방 전 일본에서 회사에 다니던 중에 당시 근로자로 온 한국남자를 만났다. 그 후 28세에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집안의 반대로 인하여 결혼절차도 생략하고 한국행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해방 후 한국의 시집에 와보니 시부모 두 분과 외동아들인 신랑과 넷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세 명의 자식을 낳았으나 그중에 둘은 병으로 죽고 딸자식 하나만이 남았다. 그 이후 남자는 한국여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남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아픈 곳을 감싸주었고 내 아들이 일본여자를 데려와서 고생시킨다고 하면서 일본 며느리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시부모의 모습에 할머니는 항상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로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내가 낳은 자식과 시부모를 위하여 직장 생활

30) 사토 테루코 일본 미아기겐

을 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가기 시작하였고, 바쁜 생활로 남편에 대한 섭섭한 감정은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과거는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해요, 오랜 세월동안 모두 돌아가시고 나에게는 딸자식만 남았고 지금은 손자 손녀까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과거는 생각하기가 싫어요. 나의 마지막 희망은 딸자식이 아무 탈 없이 잘 살아 주는 것 이지요. 지금은 나자례원에서 생활을 하니 편하긴 한데 너무 잘해주어서 미안해요”라고 말한다.³¹⁾

야기치료 <작품 9,10>

할머니는 일본 복강현의 병원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하였다. 비오는 어느 날 믿음직한 남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하였다고 한다.

복강현에서 1945년 7월 9일에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인 남편과 생활 하던 중, 불과 한 달 후 일본이 전쟁에서 폐망하여 조선이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할머니는 남편을 따라 조선으로 간다는 결정을 하게 된다.

일본에서의 결혼생활 4개월 만에 1945년 11월 15일에 한국으로 건너온 할머니는 시집인 전라도 나주인근의 시골마을에서 농사로 얻은 수익으로 전 가족이 살아야했고 궁핍하게 생활했지만, 남편의 공직생활이 시작되면서 조금 좋아졌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가 이어지고 급기야 첫째 아들을 낳은 후에는 일년에 두세 번 정도만 할머니를 찾아올 정도로 밖으로만 돌았다. 얼마 후 남편은 광주에서 두 번째 여자와 살게 되었고 할머니가 낳은 자식도 모두 두 번째 여자의 호적에 올려 지금도 할머니가 낳은 자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이유는 할머니가 일본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두 번째 자식을 낳고 부터는 생활비도 끊어 버려서 할머니는 의류장사 등을 하면서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 가정을 이끌어야했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이 되면 호롱불을 앞에 두

31) 사토다가 일본 아끼다겐 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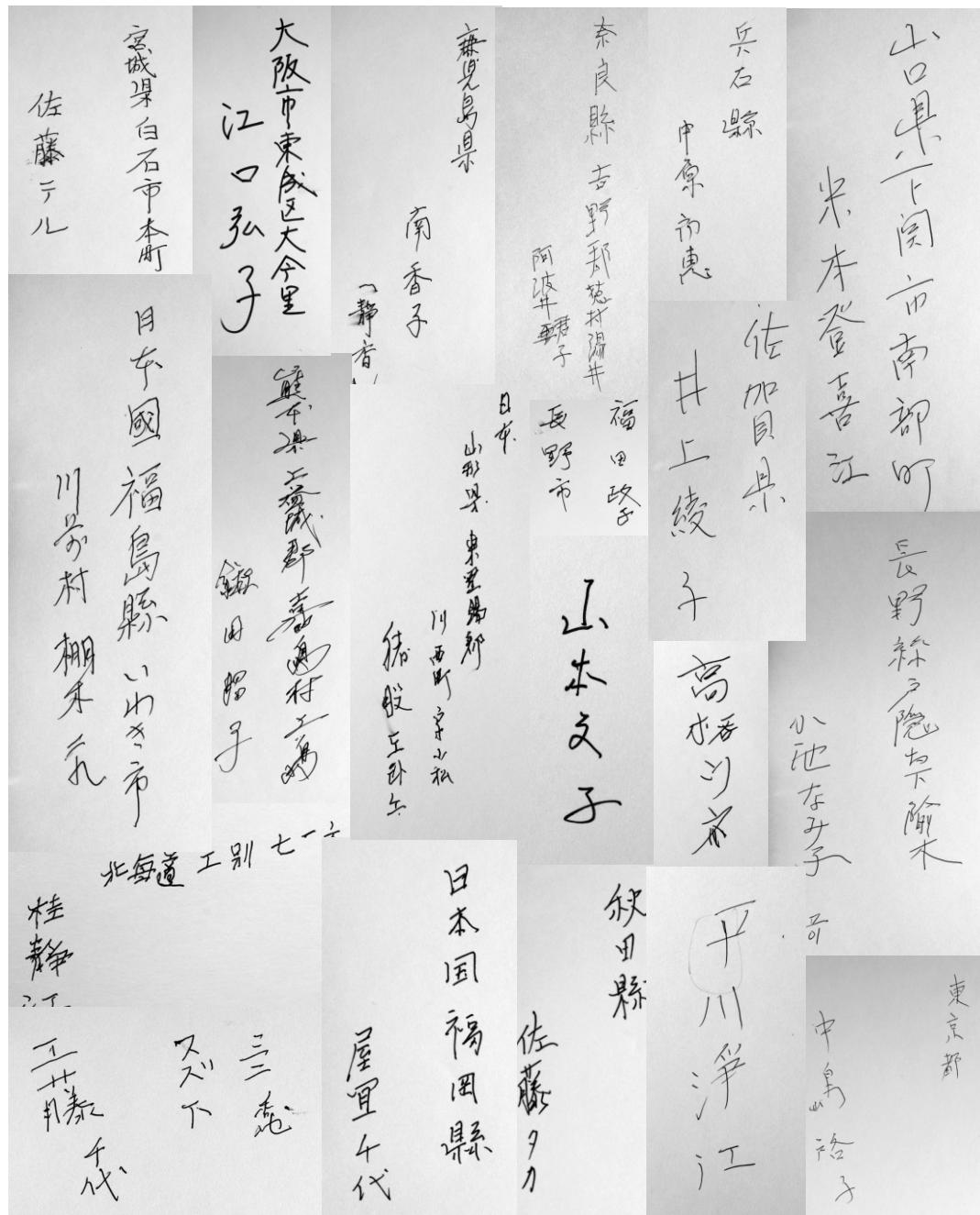
고 부모님 생각에 하염없이 울었고 방안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호통불을 보면서 시를 적어 보기도 하고 혼자 마음을 달래며 외로움을 이겨 나갔다. 자그마한 체구에도 뚝심을 발휘한 할머니는 자식 네 명을 키워내 모두가 잘 살고 있다.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무슨 욕심이 있겠는가?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호적이 뭐가 중요하나, 그리고 남편도 둘째 여자도 모두 죽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거야” 그러나 일본의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는 눈가에 눈물이 가득했다.³²⁾

32) 일본 복강현, 야기치요

▪ 일본인 처들의 친필 써인 모음



▪ 詩 (요네모토 도끼에 할머니)

요네모토 도끼에 할머니는 오랜 기간 동안 부용회의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행정적인 면과 회원 개개인의 어려웠던 상황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신 분으로서, 과거의 침략적 역사로 인한 일본인 쳐들의 과거 육십 수년을 회상하면서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온 이 분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는 내용으로 시를 써주셨다.



Fiber base Black & White 11×14 인치 크기의 인화지위에 연구자의 부탁으로 글을 쓰셨는데 사진 결과물 뒷면이 부족하여 앞면까지 활용하여 생각을 적어 주셨다.

“詩”
米むときえ作

“第一”

私は私なりにこの世を生きて行く処世術を身につけました。
苦しいときには詩が浮かび
悲しい時には書きました。
嬉しいときには泣きながら
楽しいときには思いきり
エアロビックダンスに熱中し
ピエロになってはねました。
これが私の処世術！！
今も昔も変わらない

これが私の処世術

“詩”

“第二”

異国の空で幾星霜

でこぼこ路やぬかるみを
けなしい山坂越えながら

守り続けた処世術

素直に歩けた運命も

この処世術（魔法師）のおかげです

四人の子孫に累れて

90才のおばあちゃん

ナザレの園に集りて

静かに過ごす共同体

“みざる” “云わざる” “聞かざる” も

それも一つの処世術

人生流る哲学書

この写真

向かって右が工藤90才

中央屋宜82才

向かって左が米むときえ89才

この写真を見ながらこの人達のたどった実績や歩いた人生の足跡も私は知らない

世界第二次大戦が起こって60幾年とも長い歳月が流れた。

ふとした運命のいたずらで異国の人と結ばれてこの韓国の土に根を下した私達。

言語も風俗も習慣も文化も違ったこの異国の空で過ごした毎日の生活の苦しみや悲しみ
の中で沢 平坦な道ではなんか 答だと思ふ。

長い歳月を過ごした今、ひたいの一つのしわにもそして顔一面に広がっている黒いアザ
にもこの人達の苦しかった悲しかった人生の歴史を物語っているようです。

この人達の若い青春時代の事は私は知らない。

韓国残留日本人妻として60年の間自分の運命に順応しながら運命に素直にこの異国の空
で生きてきたと私は信じる。

二人の明るい笑顔と性格を見るときお疲れ様でしたと拍手を送りたい。

歳月は流れ歴史も流れ老いて私達はこのナザレの園に集りました。

一つ屋根の下で同じ釜の御飯を食べ一緒に生活するようになったのもなにかの御縁です

。

ここに保護され収容され恩恵を受けながらキリストの愛のもとに静かな毎日を過ごして
います。

何事も感謝感謝の連続です。

工藤さん、八不さんと私。

三人の共同の知人である日本の“山口晴生”さんに送る為写真作家金鐘旭作家先生に頼
んで写して頂いた写真です。

“星霜重なり人は去り” で何時かは消えて行く私達の面影
残るものは写真だけです。

“詩”

作えときとむる

“하나”

나는 내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터득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시가 떠올라
슬플 때는 써 내려갔습니다.
기쁠 때는 울면서
즐거울 때는 맘껏
에어로빅댄스에 열중하여
피에로가 되어 뛰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처세술!!
지금도 그 옛날에도 변하지 않는
이것이 나의 처세술

“詩”

“둘”

異國의 하늘 아래서 수성상
울퉁불퉁한 길과 진창길
험한 산비탈을 넘어오면서
지켜온 처세술
고분고분 걸어올 수 있었던 운명도
이 처세술(마법사) 덕분입니다.
네 명의 손자들이 법석대는
90살의 할머니
나자렛원에 모여들어
평온히 지내는 공동체
“보지 않기” “말하지 않기” “듣지 않기”

그것도 하나의 처세술
흘러가는 인생철학서

이 사진

오른쪽이 구도90살

왼쪽이 89살

이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듬어 온 실적도, 걸어온 인생의 발자국도 나는 모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고 육십 몇 년이나 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연한 운명의 장난으로 異國사람과 맺어져, 이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린 우리들.

언어도 풍습도 습관도 문화도 다른 異國 하늘 아래서 지내며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겪은 고통과 슬픔

기나긴 세월을 지내온 지금, 이마의 주름살도 그리고 얼굴전체에 번져 있는 검버섯도

이들의 고통스럽고 슬펐던 인생역정을 이야기 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들의 젊었던 청춘시절의 추억들을 나는 모릅니다.

한국에 남은 일본인 부인으로 60년간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며 이국하늘아래서 고분고분 운명에 따라 살아왔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 둘의 밝게 웃는 얼굴과 성격을 볼 때면 고생 많았어요. 하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세월은 흘러 역사도 흘러 늙어버린 우리들은 나자렛원에 모여 들었습니다.

한 지붕아래서 한 솥밥을 먹으며 함께 생활하게 된 것도 인연입니다.

여기에 수용되어 보호받는 은혜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평안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감사 감사의 연속입니다.

구도 씨, 그리고 나.

세 사람 모두의 지인인 일본의 “야마구치 하루오”씨에게 보내기 위해 사진작가 김종옥 선생에게 부탁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성상(星箱)이 거듭되고, 사람은 사라지고”라는 제목으로 언젠가는 사라져가는 우리들의 모습, 남는 것은 사진 뿐입니다.

2. 韓國社會의 民族主義

민족주의는 본래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이념이다. 그것은 자기민족의 우월함을 주장하고 증명하기 위해 다른 민족들을 깎아 내려야 하는데, 이 점에서 민족주의는 굳이 배타적일 필요가 없는 혈육이나 고향에 대한 애정과 구분된다.

특히 민족지상주의가 야기하는 문제점은 첫째, 고난의 우리 현대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민족은 대단히 우수한데 다른 나라 때문에 망하고 식민지배와 민족 분단의 비극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말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남 탓을 하기 전에 우리 잘못이 무엇이었나를 자성해야하고,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을 잘못했음을 깨닫게 된다.

두 번째는 우리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논리와 관련된 여러 양태에서 잘 드러난다. 민족 지상주의는 민족이 다른 모든 가치들을 압도하고 지고의 가치로 부상해야만 한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기상천외한 이념을 국민 앞에 내세우면서 그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짓누르고 있다. 민족에 앞서 인권과 자유가 먼저라는 외침은 민족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될 뿐이다.³³⁾

본 연구자가 일본인 쳐에 대한 연구 과정 중에 느낀 점은 힘의 논리에 의해 인간사회도 유린되어 진다는 점이며, 잘못된 역사로 인한 결과는 모두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비참한 현실로 다가 왔다는 것이다.

33) 박지향,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머리말 글 p13~15 6006

조선의 여성들은 어떠했는가? 정신대 할머니들은 조국이 해방이 된 후에도 몸을 버렸다는 자격지심에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과, 의심 섞인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싫어서 고향을 떠난 여인들, 정신병에 걸린 여인들, 평생을 수치심을 안고 살아온 여인들, 남자에 대한 불신과 혐오, 인간기피증, 열등감, 피해의식 등으로 온전치 못하였다. 이렇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이 피해자들은 일생에서 가장 큰 한으로 남는 일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한 것³⁴⁾ 이라고 말한다.

침략적 역사의 피해자들을 놓고, 본 연구자는 나의 부모님 세대에서 겪은 문제를 두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질 양국의 여인들에 관한 정확한 역사적 인식을 필요로 하며, 두 번 다시 주변국의 침략행위로 인하여 국민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두 민족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는 불행했던 역사를 바로 알도록 양국이 노력하여 후대의 젊은이들이 역사를 바탕으로 근대 한·일 관계에 있어서 협조적 관계로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흐르는 강입니다.

강물이 대하에 도달하듯이 역사는 필연을 내재합니다.

어제가 없이 오늘이 있을 수 없고 또 내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³⁵⁾

민족주의가 강한 한국 사람들 사이에는 아직도 반일 감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 민들은 정신대 할머니 문제와 강제 징용 문제, 과거사 반성에 따른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를 두고, 그릇된 역사의 이미지에 감정의 폭을 좁히지 않고 있다.

34) 한일문제 연구원(1995), 빼앗긴 조국 끌려간 사람들 p107~p108

35) 한일문제 연구원, 빼앗긴 조국 끌려간 사람들 발간사 중 서남현(한일문제연구원 원장)

제5장. 결론

■ 연구결과

일본에서 조선인 남편을 따라 異國땅인 조선으로 시집와서 육십 여년을 살아온 일본인 처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사진 연구 중 침략국 일본 또한 제국주의의 야욕에 휩싸여 힘든 삶을 감내토록 하였다는 점과, 희생양이 된 이 일본인 할머니들의 아픔 및 그런 와중에서도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였다.

오랜 세월동안 異國에서의 삶이 고통스럽지만 그런 속에서도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처세로써 피에로처럼 살아온 이들의 원천적인 힘은 바로 민족주의에 있었으며, 그들의 의식저변에는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민족정신이 이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여 반세기 이상 異國에서의 불규칙한 생활을 견디게 하고 의식세계의 원천적인 바탕을 이루어 삶의 근본을 지키도록 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 실린 스무 명의 일본인 처들은 異國의 문화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로 국적을 떠나 육십년 이상의 인생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직업과 삶, 환경에 적응해 온 모델들이다. 사진을 보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의식과, 신선한 느낌, 삶의 다양성을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본 기록사진의 형식을 일체화 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메신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이 연구가 가지는 성과 및 후속 연구의 방향,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인 처에 관한 최초의 다큐멘터리 초상사진 연구

일본인 처를 대상으로 한 다큐멘터리 초상사진 연구는 본 연구자가 처음으로

시도한 부분으로, 20세기 초반, 조선이 일본 식민국가로 전락함으로 인해 이 시기의 한국과 일본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진 내선결혼의 당사자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본 다큐멘터리 사진 연구는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에 의미의 한축을 두며, 사진가로서의 시대적인 사명감에 의하여, 이들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인간적인 면을 포착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사진을 통해 제시하는데 다른 의미의 축을 두고 있다. 또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거의 사실을 알게 하고 역사가 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자의 작업 방향이다.

2) 복지시설 수용 이전의 생활공간 촬영의 필요성

반세기 이상의 삶을 보여주는 주거공간이 아닌, 현재의 복지시설로 생활을 옮김으로 인해 그동안의 생활의 흔적이 묻어난 종합적인 생활용품이 모두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며, 복지시설이 아닌 이들의 실제 생활공간에서의 과거와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주거생활 속에서 이들의 내면세계의 진실을 새로운 각도로 파악하고 증언내용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 다큐멘터리 연구가 이어가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3) 일본인 처에 대한 이해 및 사회적 처우개선의 과제

해방 이후 할머니들의 삶은 주위로 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여 자력으로 영위해야 했다. 할머니들 본인이 낳은 자식 또한 자신의 호적이 없는 관계로 후처의 호적에다 올리고, 온갖 멸시와 학대를 견뎌내야 했다. 이제는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몸이 쇠약하여 주위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 할머니들의 반세기 이상의 이국에서의 파란 많았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할머니들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들과의 생이별과 그로 인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생활해야 했다. 이지러진 환경으로부터 오는 삶의 고통을 감내하며,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정신으

로 살아온 이들 일본 할머니들은 지금도 전국 각 지역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으로 뭉쳐진 세월의 응어리들을 사회적인 관심으로 풀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일본인 처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처우개선의 요구는 동시대의 피해자들인 한국여성들의 위안부등의 경우와 유사점을 가지며, 이들의 인권에 대하여도 한, 일 양국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나가야 할 것이다.

4) 일본인 처들과 동시대의 모든 피해자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의 요구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국적문제로 인해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지 못하고 정부나 민간단체의 지원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쓸쓸하게 늙어가고 있는데, 이미 연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 역사를 인한 피해자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한·일 양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역사 속으로 곧 사라질 일본인 처들과 동시대의 모든 피해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적 관심 속에서 침략적 역사를 인한 상처들을 치료하도록 도와줌으로 “위기를 기회로 생각 한다”고 이야기한 어느 정치가의 말씀처럼 일본인 처들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 한, 일 국제관계에 있어서 한층 더 밝은 미래를 열어 나아 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모델이 되어주신 일본 할머니들과 사진연구 기회를 열어주신 송미호 원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과, 본 연구를 위하여 도움주신 권순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참 고 문 헌

- 모리타 요시오, 엄호건 편역, “한반도에서 쫓겨가는 일본인”, 케이제이아이 출판국, 1995
- 다카사키소지 지음, 이규수 옮김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 한영문화사, 2006
- 김성민, “현대 구성사진과 재현 다큐멘터리 사진이 제시하는 기록 사진적 관념과 사진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 현대 사진영상학회 논문집 Vol. 3, 2003
- 수전손택, “사진에 관하여”, 도서출판 서울, 2005
- 육명심, “세계 사진가론”, 열화당, 1987
- 강운구 권오룡, “나다르”(Nadar), 열화당, 1986
- 페트르타우스크 지음, 하종희 편역 “20세기 사진사”, 눈빛, 1995
- 한일문제 연구원지음, “빼앗긴 조국 끌려간 사람들”, 아세아 문화사, 1995
- 한국 사진학회지, AURA 2005, No12
- 롤랑바르트, “카메라 루시다”(사진에 관한 노트), 1986
- 수전손택, 이재원 옮김, “타인의 고통”, 2004

- 。 이영욱, <http://www.zoomin.co.kr> “세계사진가 탐구” 2005년 2월호
- 。 태리배렛 지음 임안나 옮김, “사진을 비평하는 방법”, 눈빛시각예술선서 3, 2003
- 。 박지향·김철·김일영·이영훈엮음,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2006
- 。 리챠드 볼턴 엮음/김우룡 옮김, “의미의 경쟁, 20세기 사진비평사”, 눈빛, 2001
- 。 編者 黃敏湖, 日帝下 雜誌拔萃 植民地時代 資料叢書, 政治편 啓明文化史, 1992
- 。 조진기, 한민족 어문학 제50집 pp433~466 “내선일체의 실천과 내선 결혼소설”, 2007. 6
- 。 최석영, 일본연구 학회지 일본학 연보 제9집 pp259~294 “식민지 시기 ‘내선 (內鮮)결혼‘장려문제”, 2000. 8
- 。 자크데리다, 신방흔 옮김, “시선의 권리”, 아트북스, 2004
- 。 정길성, “다큐멘터리로서의 인물사진에 관한 연구”, 2003

부록. 논문관련 연구 작품

1. 작품목록

- <작품 1>.....일본 시가겐 이노우에 아야꼬
<작품 2>.....이노우에 아야꼬
<작품 3>.....일본 야마가타겐 이노마다 도라노
<작품 4>.....이노마다 도라노
<작품 5>.....일본 오이다겐 히라가와 시즈에
<작품 6>.....히라가와 시즈에
<작품 7>.....일본 나라겐 다까하시 츠나꼬
<작품 8>.....다까하시 츠나꼬
<작품 9>.....일본 복강현 야기 치요
<작품 10>.....야기 치요
<작품 11>.....일본 나라현 카가와 키미꼬
<작품 12>.....카가와 키미꼬
<작품 13>.....일본 쇼고겐 나까라 하쓰에
<작품 14>.....나까라 하쓰에
<작품 15>.....일본 야마구치겐 요네모토 도끼에
<작품 16>.....요네모토 도끼에
<작품 17>.....일본 도교군 나까지마 게이꼬
<작품 18>.....나까지마 게이꼬
<작품 19>.....일본 후쿠시마현 구도 치요
<작품 20>.....구도 치요
<작품 21>.....일본 후쿠시마겐 엔도 후미꼬
<작품 22>.....엔도 후미꼬

<작품23>	일본 미아기겐 사토 데루꼬
<작품24>	사토 데루꼬
<작품25>	일본 오사까 에구찌 히로꼬
<작품26>	에구찌 히로꼬
<작품27>	일본 구마모토겐 구와다 쇼우꼬
<작품28>	구와다 쇼우꼬
<작품29>	일본 니이가다겐 야마모토 후미꼬
<작품30>	야마모토 후미꼬
<작품31>	일본 가고시마겐 미나미 시즈까
<작품32>	미나미 시즈까
<작품33>	일본 나가노겐 후쿠다 마사꼬
<작품34>	후쿠다 마사꼬
<작품35>	일본 나가노겐 고이께 나미꼬
<작품36>	고이께 나미꼬
<작품37>	일본 흑까이도 가츠라 시즈에
<작품38>	가츠라 시즈에
<작품39>	일본 아끼다겐 사토 다가
<작품40>	사토 다가

2. 작품사진

<작품 1>



일본 시가젠 이노우에 아야코

<작품 2>



이 노우에 아야꼬

<작품 3>



야마가타현 이노마다 도라노

<작품 4>



이노마다 도라노

<작품 5>



일본 오이다현 히라가와 시즈에

<작품 6>



히라가와 시즈에

<작품 7>



나라현 다크하시 츠나꼬

<작품 8>



다까하시 츠나꼬

<작품 9>



복강현 야기치요

<작품10>



야기 치요

<작품11>



나라현 카가와 키미코

<작품12>



카가와 키미코

<작품13>



일본 쇼고겐 나까라 하쓰에

<작품14>



나까라 하쓰에

<작품15>



일본 야마구치켄 요네모토 도끼에

<작품16>



요네모토 도끼에

<작품17>



일본 도교군 나까지마 게이코

<작품18>



나까지마 게이꼬

<작품19>



일본 후쿠시마현 구도치요

<작품20>



구도치료

<작품21>



후쿠시마현 엔도 후미코

<작품22>



엔도 후미꼬

<작품23>



일본 미야기겐 사토 데루코

<작품24>



사토 데루꼬

<작품25>



일본 오사카 에구찌 히로코

<작품26>



에구찌 히로코

<작품27>



구마모토겐 구와다 쇼우코

<작품28>



구와다 쇼우꼬

<작품29>



일본 나이가다겐 야마모토 후미코

<작품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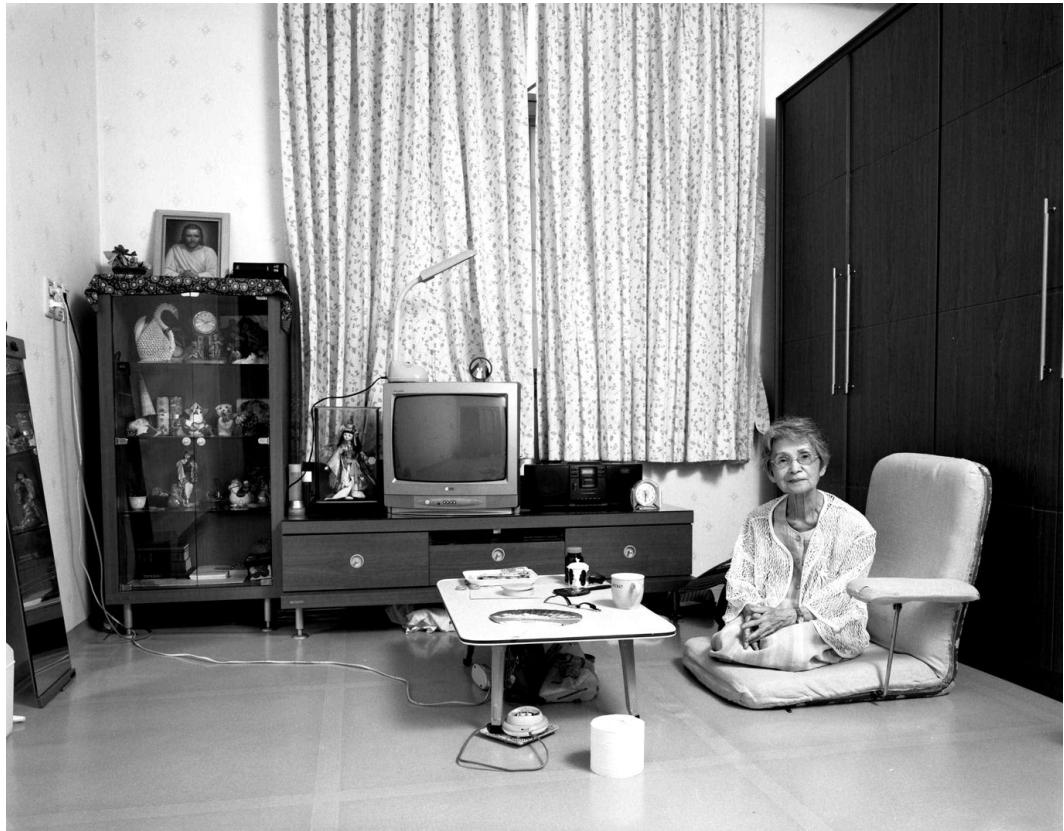
야마모토 후미코

<작품31>



일본 가고시마젠 미나미 시즈까

<작품32>



미나미 시즈까

<작품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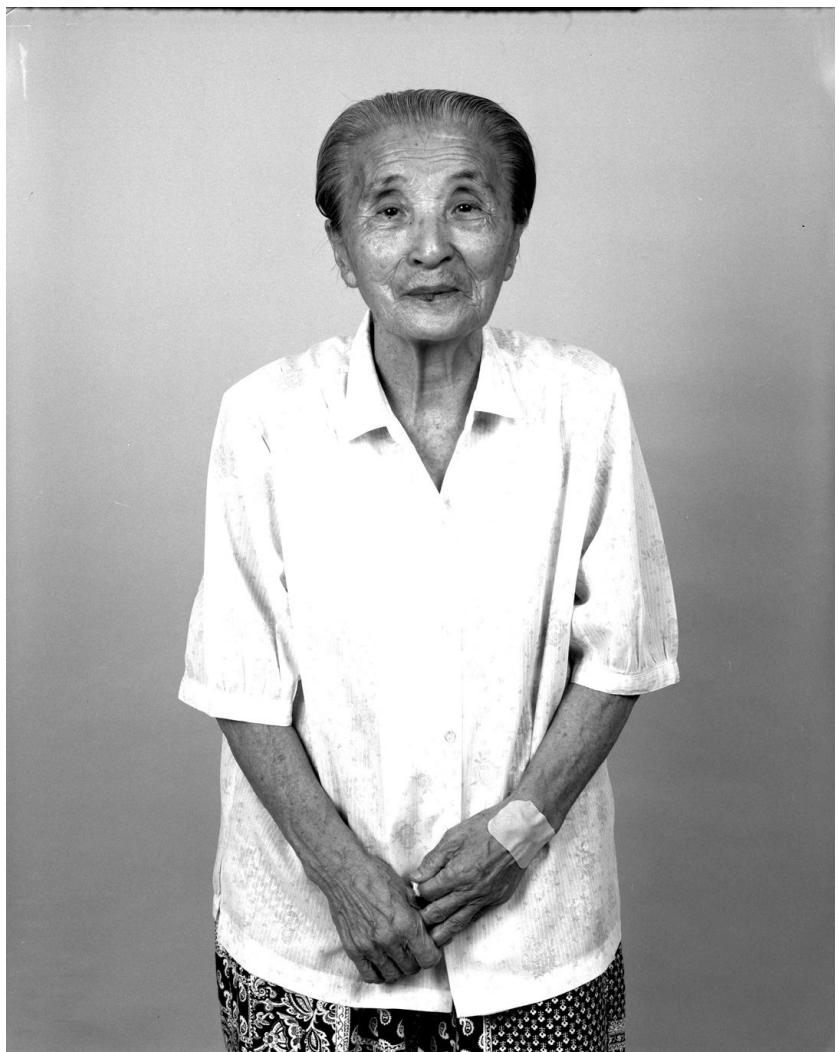
일본 나가노겐 후쿠다 마사코

<작품34>



후쿠다 마사코

<작품35>



일본 나가노젠 고이께 나미꼬

<작품36>



고이께 나미꼬

<작품37>



일본 흑까이도 가츠라 시즈에

<작품38>



가즈라 시즈에

<작품39>



일본 아끼다겐 사토 다가

<작품40>



사토 다가

▪ 작 업 노 트

▪사용 카메라 : Linhof Technika 4×5 Camera

Pentax 67 Camera

Canon EOS-1N, Canon 20 Digital Camera

▪렌즈 : Schneider 90mm, 210mm Lens

Pentax 55mm, 105mm Lens

Canon 17~40 Zoom, 70~200 Zoom Lens

▪필름 : T-MAX 400 black & white Film,

Kodak Portra 160NC Color Negative Film

▪흑 백 현상 : JOBO CPP-2

▪현상약품 : T-max Developer

▪인화약품 : Kodak Dektol Developer

▪인화지 : ILFORD Multigrade Fiber Base

식민지시기 조선으로 이주한 일본인 처들의 인물사진 연구

- 연구자의 인물사진을 중심으로 -

김 종 옥

경주대학교 산업경영 대학원

영상예술학과

지도교수 김 성 민

(초록)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 경주의 나자레원 복지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할머니들로서, 일제 강점기에 조선으로 시집와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평생을 이국땅에서 살며 침략자 국가의 역사적 허물을 쓴 채 조용히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온 할머니들로서, 본국의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삶도 뜻뜻하지 못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일본인으로서의 삶을 지켜나가는 이들에게서 인간으로서 공통된 삶의 의지와 자국 민족의 자긍심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고통 속에서도 피에로처럼 삶을 이어온 이들 일본인 처들의 인생을, 현대의 인간 사회에서는 민족주의를 초월한 의식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침략국의 국민이라는 고정된 시선에서 벗어나 국제화 시대, 지구촌의 사회적 시각에 초점을 두고 여러 방면에서 민족의식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 분들의 모습에서 과거 시간속의 인생역정을 읽을 수 있으며 피에로 같은 반복적인 삶으로 인하여 비롯된 신체적 특징이라 할 안면의 주름과 휘어진 허리, 미묘한 표정 등에서 인물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이들 할머니들의 연출하는 진솔한 이미지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온 '시간과 공간의 의미탐구'라고 하는 오랜 시간 연구자가 추구해 온 기준의 다큐멘터리 사진과 연구의 방향성이 일치한다. 이 분들의 표정과 생활의 공간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느낌과 이미지들이 일제 강점기가 빚어낸 또 다른 우리사회의 단상이라 생각하여, 이를 사진과 영상으로서 남기는 것이 이 시대의 사진가로서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식민지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던 것을 시점을 달리하여 가해자인 일본의 입장에서 자국민들에게 감내 토록 한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제국주

의 야욕의 희생양이 된 일본인 할머니들의 아픔과 그런 와중에서도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적이 모습을 다큐멘터리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였다.

The Study on Portrait Photographs of Japanese Wives who moved to Joche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 Portrait Photographs of the Author –

Kim, Jong Wook

Department of Visual Art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 Min)

(Abstract)

The subject of the study is Japanese elder women who live in the welfare center named Najarewon in Kyung Ju, Korea, who moved from Japan for marriage with their Korean husbands and have lived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al Period (1910~1945). They couldn't back to her homelands and have lived with accepting their own destiny while running a risk of the people of an invader. On top of it, they were turned away from their family members in Japan and have lived turbulent life in Korea.

I did discover that Japanese wives have lived with their pride and common and universal will for life as a human being and they have lived like a clown accepting painful situations and conditions. So, I tried to re-illuminate Japanese wives lives from various points of view such as globalization era, international community deviating from fixed eyes and conventional wisdom and raise an issue regarding national consciousness from various social viewpoints.

Meanwhile, I tried to portrait captured the straight-looking eyes and impassiveness of the Japanese wives and visualized what I found in their shared poses as images of people via physical features such as their wrinkles, slightly bent, delicate facial expressions, which was resulted from turbulent lives. These candid images correspond with the direction of my study, which is a long-sought aim throughout my documentary career. On top of it, I thought that these pictures and images should be remained since these pictures and images represent the reality of our society, which were resulted from the Japanese Occupational Period.

I did make a record via documentary pictures and images humane features, who tries to live taking their lives as a destiny with pains from Japanese people's viewpoints, not from a victim's angle.